

3) 농민의 조직화

이 단계에서 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얼마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을까. 앞서 언급한 한송주의 글에서는 서면의 인물로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방기자로 활동한 김기수와 박병두, 순천면의 이영민과 이창수, 그리고 이들과 연관을 맺고 있던 각 면의 소수 지식인들의 계획하에 집회가 열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. 집단행동이 서면에서 발발한 최초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사실 없다. 그러나 그토록 빨리 집회가 확산된 데에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.

각 면의 집회는 곧바로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김기수와 박병두, 이영민과 이창수 등 언론사 지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의 행동결과였다. 동시에 이들은 스스로 농민들의 행동을 지휘해나가기 시작했다.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전군을 돌아다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야말로 집단행동을 자극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다. 당시 송광면의 상황을 지켜본 조규식(趙圭湜)은 이들이 송광면을 방문하여 농민의 단결을 역설하였음을 기억한다.¹⁾

집회의 물결은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발전해갔다. 집회를 주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대표기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결집하고 행동을 통일하였다. 각 면의 조직은 농민대회, 소작상조회, 소작대회 등 다양한 이름을 내걸었는데 점차 농민대회라는 명칭으로 수렴해갔다. 이들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, 총무와 회계, 서기 등의 임원을 두었고 몇 명의 평의원을 선정하는 한편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유력인사를 포섭하였다.²⁾ 한편 각 면 농민대회의 대표들이 모여 1923년 2월 11일 순천농민대회연합회라는 군단위 기구를 결성했다. 이는 면단위 농민대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박병두·김기수·이창수·이영민·이길홍·임태유(任泰攸)·김영숙(金永淑)·정영하(丁永夏)가 발기인이 되었고 그밖에 이건(李健) 등이 참여하였다.³⁾

당시에는 소작인을 지도하기 위해 지주가 설치하거나 지주와 소작인의 공동단체로서 결성된 농민단체가 많은 실정이었다. 그런데도 1922년 3월부터 1923년 8월까지 농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민단체로 당국이 파악한 32개 단체 중 9개를 순천의 농민대회가 차지하고 있었고, 그외의 8개 단체가 순천 단체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었던 광양·여수·고흥의 농민단체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.⁴⁾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더 나아가 여수·광양·보성 등지의 농민단체들과 연합하여 남선농민연맹을 결성했다. 여기에는 순천농민대회연합회의 간부인 이영민·이창수·박병두·김기수·이길홍 등과 광양의 김완근(金完根)·정진무(鄭晉武), 벌교의 서병기(徐炳冀)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.⁵⁾

1) 조규식은 특히 이창수가 키가 작았으나 눈이 날카롭고 발언이 강경하였음을 강조한다.
2) 『동아일보』 1924. 3. 8.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였는데 대체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상사면의 경우 논 1두락당 4전, 밭 1두락당 1전을 징수하였다.
3) 『동아일보』 1923. 2. 26.
4) 全羅南道, 『小作慣行調査書』, 1923, 122~124쪽. 다만 왜 순천의 단체 중 9개만이 파악되었는지는 의문이다.
5) 『동아일보』 1923. 3. 10.